

광주시교육청,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역사교육 강화 추진

일본 정부, 역사 왜곡·영토 주권 침해 부당성 바로잡기 위해 마련 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연계, 다양한 독도교육 체험 프로그램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독도교육을 포함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교육청에서 개발한 '달마다 만나는 민주시민 이야기' 계기교육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4일 강제징용 관련 계기교육 안내에 이어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교현장 친일 잔재 청산 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을 추진한다.

둘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독도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초4~고1 학생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연중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며, 학교별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선정하여 독도교육주간 동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독도를 실감나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체험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독도지킴이 학교 등 교육부나 관계부처가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연계한 다양

한 독도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직속기관인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생각이 커지는 독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도사랑 체험활동을 통해 초2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인식과 영토 수호의지를 고취시킨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 독도체험관 개선을 통해 콘텐츠 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역사교육을 펼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고흥동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고흥동초등학교는 3월 20일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급 교실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미디어를 건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

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고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하고 예방하며 미디어를 건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사례, 예방 방법,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

을 주제로 학급당 4시간 동안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시간도 가져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장흥서초,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으로 활기



장흥서초등학교는 1학기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했다. 학교폭력예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활기를 띠었다. 일주일 동안 기본 예절과 질서 지키기를 위하여 공수인사, 오른쪽 걷기, 바른 언어 사용 등 매일 한가지씩 목표를 정하였고 학생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으로 자기 존중과 생명존중 의식을 기르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사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장흥서초 육남매 다모임'시간에는 전교생이 쉬인 장흥서초 가족 모임인 육남매를 결성하였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몰랐던 형, 누나들과 인사를 나누며 육남매 이름과 구호를 정하며 웃음꽃이 활짝 피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김수권기자

1년 동안 함께 할 육남매 활동으로 선후배 간 단장을 허물고, 새로운 친구와 가족이 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갈 것이다. 육남매는 앞서 소개한 사제동행 독서프로그램에서 찾은 자신의 장점을 발표하며 서로 소개하였고 육남매의 특징을 모아 개성 있는 육남매의 이름과 구호를 만들었다.

전교학생회가 주최한 '점심시간 착한 신고 방송'은 큰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방송은 친구의 선행이나 공개 사과, 가정에서의 효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연을 직접 적고 라디오에 사연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라디오 진행을 맡은 전교학생회 친구들은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고, 일주일 동안 매일 진행하며 발전된 진행 실력도 보여주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집에서 실천한 효행 신고 사연을 많이 보내주었다.

장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년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 마음을 도약이는 원예치료와 미술치료, 또래 갈등 회복을 위한 역할극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가정과 연계하여 운영한 밤삼거리 교육과 굿네이버스 희망편지대회 참여하기, 놀이로 함께하는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을 통해 인성교육을 내실화 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도록 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장성 서삼초, 시(視)·감(感)·연(演)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동당에 극단' 유치원 및 전교생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 실시

장성 서삼초등학교는 지난 3월 30일 '동당에 극단'과 유치원 및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사례로 구성된 학교폭력 연극을 관람하고 피해자가 겪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배우들과 함께 학생들이 감정이입 장면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연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먼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유형들을 배우들이 짧게 연출 후 토크 형식으로 구성하여 학교폭력 유형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연극으로 관람하면서 연극 속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연극을 보고 등장 인물에게 전하고 싶은 말, 소감 등을 포스트잇 적고 배우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무학년제 모둠을 구성하여 연극을 본 느낌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배우들과 함께 역할극을 재현하면서 학생들은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에게 지적, 조언, 공감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장성=김수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